

# LG전자, 기능성 소재 생산 확대… 글로벌 사업 속도낸다

하이퐁·창원 생산라인 본격 가동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 전략  
“사업 기회 지속 확대해 나갈 것”

LG전자가 기업 간 거래(B2B) 핵심 사업으로 육성 중인 기능성 소재 사업의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강화한다. 베트남 하이퐁 생산라인을 본격 가동하며 글로벌 고객사 대응력과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최근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에서 유리 파우더 기반 기능성 소재인 ‘LG 퓨로텍’과 ‘이지클린 법랑’ 생산라인을 가동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퐁 생산라인은 부지 3200㎡(약 970평) 규모의 전용 공간에 구축됐으며 연간 약 2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LG전자는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LG 스마트파크’에서도 연간 약 4500톤 규모의 기능성 소재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이퐁 생산라인 가동으로 창원과 하이퐁을 합쳐 연간 총 6500톤 규모의 생산 역량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위생·안전 기준 강화와 합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에서 유리 파우더 기반 기능성 소재인 ‘LG 퓨로텍’과 ‘이지클린(Easy-Clean) 법랑’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LG전자

계 기능성 소재 수요가 가전을 넘어 건축 자재, 의료기기, 식품 포장재 등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시장 선점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가 하이퐁 생산라인을 구축한 것도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이퐁 생산라인은 북미와 유럽, 중국은 물론 인도와 동남아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생산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LG 퓨로텍이 속한 글로벌 항균제 시

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데이터 브릿지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항균제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36억 6000만달러에서 2032년 약 72억 900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LG 퓨로텍은 플라스틱, 페인트, 고무 등의 자재에 소량 첨가해 미생물로 인한 오염을 억제하는 항균·항곰팡이 기능성 소재다. 원재료의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소재와 높은 호환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LG 퓨로텍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뿐 아니라 건축자재,

위생용품, 식품 포장재, 의료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지클린 법랑은 금속 표면에 유리질 세라믹을 얇게 입히는 기능성 코팅 소재다. 전자레인지와 오븐 등 조리가전 내부에 적용하면 음식물이나 기름때를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해도 변색과 긁힘이 적다. 고온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해 위생과 관리 편의성이 중요한 주방가전의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기능성 소재 사업에서는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균일한 품질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하이퐁 생산라인은 원료 투입부터 용융, 냉각, 분쇄,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체 공정의 약 80%를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품의 품질 균일성도 확보했다.

LG전자·김영석 HS기능성소재사업실장은 “생산 인프라와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소재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업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삼성전기, 글로벌 대형기업에 AI 서버용 MLCC 공급

3000억 규모 계약… 실적개선 탄력  
장덕현 사장 “기술 경쟁력 인정 받아”

삼성전기가 글로벌 대형기업과 약 3000억 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기는 올해 들어서만 실리콘 캐패시터, 박테크向 MLCC에 이어 세 번째 대형 장기공급계약을 확보하며 AI 서버용 부품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23일 삼성전기에 따르면 이번 계약 규모는 약 3000억 원(2억 달러)이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삼성전기는 이 기간 고객사의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시스템에 적용되는 고성능 MLCC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기의 MLCC 설계 기술과 고온·고전압 환경에서의 제품 신뢰성, 글로벌 대형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품질 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전기는 지난 5월 글로벌 고객사와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실리콘 캐패시터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6월에는 글로벌 박테크 기업과 약 4,500억 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 장기계약이 연이어 체결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사례로 보고 있다. MLCC가 단순 수동부품을 넘어 AI 인프라 성능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전략 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평가가 나온다. AI 서버용 MLCC는 일반 서버 대비 10배 이상의 탑재량(서버랙 기준 최대 60만 개)이 요구되는 데다 초소형·초고용량, 고온·고전압, 휨 강도 등 까다로운 신뢰성 기준을 충족해야 해 실제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제한적이다.

이 같은 높은 기술 진입장벽으로 하이엔드 MLCC의 납기는 최근 8주에서 24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는 최대 10%, 타이요유덴은 6~13%의 가격 인상을 각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2026년 MLCC 가격 전망을 기존 보

합에서 0~5% 상승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MLCC 시장이 AI 인프라 중심의 강한 수요와 소비자 부문 부진이 공존하는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기, 타이요유덴 등 선도 업체의 수주잔고 대비 매출(BB) 비율은 이미 1을 웃돌고 있다.

모도 인텔리전스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MLCC 시장 규모는 2026년 318억 7000만달러(약 47조원)에서 2031년 641억 9000만달러(약 94조원)로 확대돼 연평균 15% 넘게 성장할 전망이다. 차량 전동화와 AI 인프라, 엣지 컴퓨팅 확산으로 MLCC를 비롯한 수동부품 수요가 늘면서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MLCC 시장도 반도체 설비 확장과 AI 기기 전환에 힘입어 2026년 37억 6000만달러(약 6조원)에서 2031년 89억 2000만달러(약 13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도 AI 서버용 MLCC 비중 확대에 따른 삼성전기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용 MLCC 매

출 비중은 2025년 50%에서 2027년 43%로 낮아지는 반면 AI용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1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기의 2026년과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잇달아 상향 조정됐다. 수요 구조가 소비자(B2C) 중심에서 서버 중심 기업간거래(B2B)로 재편되는 가운데 높은 가동률과 재고 축소로 가격 인상 여건도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삼성전기는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와 MLCC 중장기 공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장기공급계약 확대를 통해 AI 서버용 MLCC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은 “이번 계약은 삼성전기 MLCC가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고객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세대 선단 제품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AI 부품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삼성전자 노사, DS부문 성과급 사회공헌 활용 방안 논의

1인당 수백만원 수준 출연 전망

삼성전자 노사가 다비이솔루션(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일부를 사회공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특별경영성과급을 활용한 사회공헌 방안을 연내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회사 측 요청과 성과급을 둘러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사회공헌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공헌 방안으로는 임직원이 특별

경영성과급의 0.5~1%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정하면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 출연하는 ‘1대1 매칭’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제성 없이 임직원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구조로, 1인당 출연 규모는 수백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특별경영성과급 6억원 중 1%를 출연하면 600만원을 기부하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 출연하는 식이다. 초기업노조는 현재 조합원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지난 5월 20일

타결된 임금협약 잠정합의가 있다. 당시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DS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기존 OPI 1.5%를 더해 총 12%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률 상한도 폐지했고 제도는 10년간 운영되며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50조~400조원 수준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연간 3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직원이 이 중 1%를 사회공헌에 출연할 경우 연간 3000억원, 제도 운영 기간인 10

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재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출연 방식은 자사주 지급 시 기부금을 먼저 차감한 뒤 잔여 주식을 지급하고, 차감액은 회사 또는 관련 재단을 통해 공식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직원과 회사가 매칭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는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에도 DS부문 특별상여금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하고 회사가 동일 금액을 매칭그랜트로 출연해 총 182억원 규모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 만큼 임직원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출연 비율과 기금 사용처 등은 추후 노사 협의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 현대차, 2분기 최대 매출 영업익 전년比 20% 감소

현대차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 감소하며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부품 공급 차질과 인센티브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확대로 하반기 수익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현대차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49조 2153억원, 영업이익 2조 8509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출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호조와 우호적인 교환율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영업이익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부품사 화제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20.8%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5.8%를 기록했으며 당기 순이익은 2조 888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6.9% 감소한 99만 1885대를 판매했다. 국내에서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한 15만 7647대를 판매했다. 이는 대전에 있는 부품사 화제로 제네시스 등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4.9% 감소한 83만 4238대를 판매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선 0.9% 증가한 26만 4587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하반기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으로 아반떼 플채인지와 제네시스 신차 등을 잇달아 출시하며 판매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 정상화와 신차 효과를 바탕으로 연초 제시한 연간 매출 성장률 1~2%, 영업이익률 6.3~7.3%의 가이던스도 유지했다.

한편 배당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통주 1주당 25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기아 UX 스튜디오 상하이 전경.

## 현대차·기아 ‘UX 스튜디오 상하이’ 개관

현대자동차·기아가 디지털 경험을 중시하는 중국 소비자의 의견을 상품 개발에 반영하며 글로벌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중국 상하이시 장안구에 사용자 경험(UX) 연구 거점인 ‘UX 스튜디오 상하이’를 개관했다고 23일 밝혔다.

UX 스튜디오 상하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생태계와 높은 기술 수용성을 갖춘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를 연구하고 이를 차세대 상품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 거점이다.

현대차·기아는 이곳에서 중국 소비자의 생활 방식과 이동 경험을 분석해 인공지능 중심 차량(AIDV)의 사용자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